

새벽 출근 힘들지만 밤에 푹 잘 수 있어 행복해요

기아차 광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 근무 첫 날

2600명씩 1·2조 나눠 오전·오후 출근
“남은 시간 가족 챙기고 취미생활 즐길 것”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다니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른 출근에 적응이 힘들지만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4일 새벽 광주 서구 기아로, 컴컴한 어둠을 뚫고 실새 없이 출근 차량과 통근 버스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주변을 오고 갔다. 공장의 환한 불빛 사이로 속속 모여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공장 입구로 들어갔다. 아직은 추운 날씨에 두터운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다.

광주2공장 북문에서 만난 21년차 성상옥(45)씨는 “출근이 당겨져서 아직 힘들지만 새로운 기분”이라며 주간 연속 2교대 첫날을 반겼다.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낼 것”이라고 묻자 “소홀했던 가족도 챙기고, 취미에 시간을 쏟고 싶다”며 웃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이날 21년 만에 밤샘근무를 없앴다. 이전엔 주간

조와 야간조로 나눠 연장근로 포함, 하루 10시간씩 근무했다. 야간조는 오후 8시30분부터 날을 꼬박 새고 다음 날 오전 7시30분이 돼서야 일이 끝났다. 주간 연속 2교대는 1조가 오전 7시 출근한 뒤 오후 3시40분(8시간 근무)에 업무를 마치고, 2조는 바로 이어 다음날 새벽 1시40분(9시간 근무)에 근무가 종료된다. 출근이 약간 빨라진 대신 밤샘노동은 사라진 것.

인턴사원 오자훈(24)씨는 “해 뜨는 것을 보고 퇴근하다가 낮에 집에 간다니 설레고 기대된다”며 “쫄쫄했던 피로도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했다. 김승주(48)씨는 “지난해 주간 연속 2교대 시범 시행 당시 몸에 무리가 오지 않아 좋았다”며 “직원들이 벌써 남은 시간에 즐길 운동과 취미 계획을 짜는 것을 보니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반직 근로자들도 출근 시간 변경



기아자동차가 4일 광주공장의 ‘밤샘근무’를 없앤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오후 3시40분께 광주 2공장에서 오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공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에 맞춰 오전 6시가 조금 넘자 사무실 상시 주간조 600여 명을 제외하고 1조와 2조로 나눠 2600명씩 오전·오후 출근을 번갈아 하게 된다. 근로 시간이 줄어 생산이 감소한 부분은 생산 속도를 높여 보충하기로 했다.

차체공장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정

나연(55) 기성보는 “주간 2교대를 위해 현장 회의와 업무지시 등을 체계적으로 다시 준비했다”며 “근로자들이 피로에서 벗어나 더욱 좋은 품질로 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 근무 희비

지역 여가시설 활황 기대 식당 등 주변 상권은 울상 협력업체들 출근 앞당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4일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면서 근로자 여건과 공장 주변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주변 상권은 당장 울상을 짓고 있다. 실시 이전엔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1시간의 교대시간이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맞교대가 되면서 인근 교통상황도 나빠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여가 시간에 ‘체력을 키우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밤샘 근무로 쌓였던 피로감을 운동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보다 적극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취미에 시간을 쏟겠다는 근로자도 많았다. 생산직 근로자가 60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광주와 전남의 여가시설도 활황을 맞을 가능성이 더해졌다.

기아차 한 관계자는 “오후 3시40분에 퇴근하면 해가 긴 여름철엔 당일 골프도 가능해진다”며 체육시설이 붐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화점 문화센터 등 취미교육시설도 퇴근 시간에 맞춰 강좌를 개설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 근로자들은 다소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생산직과 맞춰 출근시간이 오전 7시로 앞당겨지면서 원칙

대로라면 오후 3시40분에 업무가 끝난다. 하지만 퇴근하기에 ‘눈치’가 보이는 시간이다. 차후 업무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천동과 내방동 일대 식당가는 매출이 푹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엔 주간조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마친 오후 7시30분께 근처 식당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지만 퇴근 시간이 한 낮과 새벽으로 바뀌면서 손님 구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맞교대 시간인 오후 3시40분께는 공장 주변이 차랑으로 겹치면서 큰 혼잡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교대 시간엔 6000여 명이 한꺼번에 출·퇴근을 하게 된다. 광주공장은 최근 70억 원을 들여 400여 대의 주차공간을 늘렸다. 그래도 혼잡을 막기엔 역부족 상황이다.

광주지역 기아차 협력업체들도 출근시간을 오전 7시로 당겼다. 부품과 자재를 실시간으로 이송하는 협력사 특성상 기아차와 업무 시간을 맞춰야 한다. 예전엔 주간조와 야간조의 교대시간에 화물 운송이 몰렸지만, 회사에 따라 시간대도 달라졌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출근 시간은 기아차에 맞춰지만 아직 근로 시간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며 “주간 2교대가 자리잡는 것을 보면서 협력업체들도 기아차와 근로 시간을 서서히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창규)은 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형기 북광주세무서장(왼쪽)이 이찬일 담양동산치과 원장에게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의 날’ 행사

모범납세자 등 표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창규)은 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경제 4단체장·세정 관련 단체장, 모범 납세자, 국세공무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산하 14개 세무서도 기념식과 함께 1일 명예서장, 1일 민원봉사실장을 위촉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성창중공업㈜이 동탑산업훈장, ㈜대신기공이 철탄산업훈장, ㈜해양도 시가스와 해전건설㈜이 대통령표창, 천시멘트㈜와 (유)동양산업개발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2명, 국세청장 표창 31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53명, 세무서장 표창 97명 등 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로 상을 받았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 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

무서장 수상자는 2년 동안 각각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시 각각 3년과 2년간 납세담보(5억원) 제공이 면제된다.

또 업무상 중증 철도 이용 시 운임 할인 혜택,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지자체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듣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과세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성실 납세와 세정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해 국세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 게재, 세정간담회 개최, 학생세금교육, 학생세금문예작품 및 UCC공모전 개최 등 각 관서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월 완성차 판매 내수·수출 모두 줄어

전년동기비 4.2% 줄어

지난달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시장 판매와 수출이 모두 하락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5개사는 지난달에 국내에서 9만8826대, 해외에서 55만2503대를 판매해 국내외에서 총 65만1329대를 팔았다.

작년 2월보다 국내 판매는 12.5%, 해외 판매는 4.2% 감소해 국내의 판매는 5.6% 줄었다.

지난달에 설 연휴가 포함돼 영업일수가 감소했고 경기 위축, 올해 개별 소비세 환원의 영향이 더해졌다.

특히 1~2월 내수 판매는 총 20만 3203대로 지난해 1~2월보다 3% 감소해 경기침체의 영향이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판매 감소는 국내 공장의 작업일수 감소로 수출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현대차는 19%, 기아차는 30%, 한국지엠은 7.7%, 르노삼성은 32.8%, 쌍용차는 12.9% 등 5개사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해외 공장만 판매가 늘었다. 춘절이 있었던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유럽, 인도 등지의 생산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13.15 (-13.34)	▲ 코스닥지수 537.38 (+1.51)	▲ 금리 (국고채 3년) 2.63% (0.00)	▲ 원·달러 환율 1093.20원(+10.20)
-----------------------------	---------------------------	-------------------------------	-------------------------------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음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MONTURA ARC'TERYX mello's patagonia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